

〈Brief Report〉

남성성 과잉(hypermasculinity)과 음주의 관계*

신 행 우[†]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남성 성 역할에 동일시하는 남성성 과잉(hypermasculinity)과 음주질제력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남성성 과잉과 음주질제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그리고 남성성 과잉과 음주량/빈도 및 음주문제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성 과잉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음주질제력이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남성성 과잉의 고유한 설명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남성성 과잉이 음주질제력을 매개하여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남성성 과잉, 음주질제력, 음주문제

비록 최근 들어 여성의 음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음주는 주로 남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음주의 빈도와 술 소비량, 문제성 음주와 알코올 중독의 발생률 등 음주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

성을 압도하고 있다(Berkowitz & Perkins, 1987; Lemle & Mishkind, 1989; Lo, 1995; Sharpe & Heppner, 1991).

이와 같은 음주에서의 성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알코올 대사에 있어서 남녀간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알코올리즘에 걸릴 위험도에서 남녀간의 행동

*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 행 우 /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번지 565-701 / TEL: 063-290-1378 / E-mail: hwshin@woosuk.ac.kr

유전학적 차이 등(Tarter, Alterman, & Edwards, 1985)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설명만으로는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일찍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왜 남성과 여성은 음주량과 빈도 등 여러 가지 음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심리학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성 역할 사회화 이론이 음주의 성차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으로 제기되었다. 즉 사람들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화에서 남녀에게 달리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함으로써 음주에서의 성차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Lemle과 Mishkind (1989)는 남성들이 음주를 매우 남성적인 활동으로 지각하고 있어 음주가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들은 남자다워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 (Chomak & Collins, 1987; Huselid & Cooper, 1992; Mosher & Sirkin, 1984)에서 남성적인 특성에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음주문제를 일으킬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 우월주의 성격(macho personality) 또는 남성성 과잉(hypermasculinity)이란 경직되고 굳어진 성 역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남성적 지위나 성적 권력에 대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특징인 과장된 남성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Mosher & Sirkin, 1984). Mosher와 Sirkin (1984)은 남성성 과잉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a) 여성에 대한 굳어진 성적 태도 (b) 폭력을 남자다운 것으로 보는 태도 (c) 위험을 재미로 여기는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남성성 과잉과 음주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성 과잉이 음주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후의 공격적 행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암묵적으로 ‘남자라면 당연히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하고 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진짜 남자다운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다움을 인정받기 위하여 또는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음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성의 성 역할 태도와 음주와의 관련성은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음주가 남성의 규범적인 행동으로 당연시되어, 성 역할과 남성 음주 간의 관계를 주목하지 않은 탓인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성 과잉이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남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무절제한 음주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성성 과잉의 정도에 따라 음주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소재 2개 대학과 지방 소재 1개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생 17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178명 중 1학년이 48명(27.0%), 2학년이 24명(13.5%), 3학년이 46명(25.8%) 그리고 4학년은 60명(33.7%)이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2.6세(표준편차: 2.69)였다.

측정도구

남성성 과잉 척도(Hypermasculinity Inventory).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남성 성 역할에 집착하는 것이 특징인 남성성 과잉을 측정하기 위해 Mosher와 Sirkin (1984)이 개발한 남성성 과잉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 각 10문항씩 해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항은 두 가지의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고 응답자가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3개의 하위척도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 가지씩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가 된 진술문에 응답했을 때 남성성 과잉 쪽으로 채점됨).

(a) 여성에 대한 굳어진 성적 태도

나는 완전히 동의한 여성들과만 성 관계를 갖기 원한다.

나는 성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b) 폭력을 남자다운 것으로 보는 태도

누가 내게 욕을 하면 나는 못들은 척 할 것이다.

누가 내게 욕을 하면 나도 맞받아 욕을 할 것이다.*

(c) 위험을 재미로 여기는 태도

나는 조심스럽게 놀기보다는 과감하게 내기를 거는 편을 더 좋아한다.*

나는 과감하게 내기를 걸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노는 편을 더 좋아한다.

음주절제력 척도(Drinking Self-regulation Scale).
술을 마실 때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정한 음주를 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절제력 척도를 제작하였다. 음주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은 크게 보아 음주수준의 설정(문항 예: 술 마시러 갈 때, 어느 정도까지 만 마셔야겠다고 미리 생각한다), 음주압력의 거절(문항 예: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해도 내 페이스를 잊을 것 같으면 분명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음주의 완급조절(문항 예: 다른 사람이 원샷을 제안하면 술잔을 완전히 비운다)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음주절제력 척도 총 20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6 이었으며, 음주수준의 설정(6문항)은 .73, 음주압력의 거절(7문항)은 .79 그리고 음주의 완급조절(7문항)은 .76이었다.

음주 정도의 측정. 음주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7점 척도(0: 한 번도 아닌 적이 없다~6: 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1회 평균주량을 알아보

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음주문제의 측정.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행우 (1999)가 만든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 즉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결 과

남성성 과잉 척도의 문항분석

전체 30개의 문항들 중 타당하지 않은 문항들을 가려내기 위해 먼저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회전 요인분석에서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이 10개가 추출되었으나, Scree 검사 결과와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Varimax 요인 회전을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요인 적재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한 개의 요인에 부하되었다 하더라도 요인 적재값이 .30미만인 8개의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과 척도 총점간의 상관을 구한 후, 문항-총점 상관이 현저하게 낮은 1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폭력 척도' 8문항, '굳어진 성 척도' 6문항 그리고 '위험 척도' 7문항 해서 총 21개 문항의 총점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1문항의 남성성 과잉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8 이었으며, 척도 점수의 평균은 6.69 표준편차는 4.00 이었다.

한편 남성성 과잉 척도는 Marlowe-Crowne(1961)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t(178) = -.28$, $p < .01$, 이는 남성성 과잉 쪽으로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남성성 과잉과 타 변인들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표 1. 남성성 과잉,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상관관계

	음주 절제력	음수수준 설정	음주거절 능력	음주 완급조절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전체	학업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대인 관계손상
남성성 과잉	-.38*** (-.37***)	-.27*** (-.29***)	-.25** (-.24**)	-.37*** (-.35***)	.15* (.15*)	.34*** (.33***)	.33*** (.30***)	.28*** (.23**)	.33*** (.30***)	.26*** (.25**)
음주절제력		.74***	.85***	.78***	-.48***	-.61***	-.50***	-.57***	-.33***	-.39***
음수수준설정			.48***	.33***	-.28***	-.29***	-.27***	-.34***	-.17*	-.16*
음주거절능력				.49***	-.48***	-.48***	-.52***	-.58***	-.34***	-.45***
음주완급조절					-.36***	-.65***	-.37***	-.41***	-.25**	-.29***

()안은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제한 후의 남성성 과잉과 타 변인간의 부분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남성성 과잉,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간의 단순상관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남성 성 역할에 동일시하는 남성성 과잉의 정도와 음주절제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남성성 과잉의 정도에 따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1) 남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8) = -.38$, $p < .001$. 그리고 남성성 과잉은 음주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178) = .15$, $p < .05$, 평균주량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8) = .34$, $p < .001$. 또한 남성성 과잉은 음주문제의 정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178) = .33$, $p < .001$.

그런데 남성성 과잉 점수와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 때문에 타 변인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제 같은 변인과 남성성 과잉간의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남성성 과잉과 타 변인들간의 부분상관을 산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남성성 과잉과 타 변인들과의 관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2.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절제력 및 남성성 과잉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1 단계						2 단계		R^2
	음주수준설정		음주거절능력		음주완급조절		남성성 과잉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음주빈도			-.40***	.23	-.17*	.02			.25
평균주량			-.22**	.04	-.54***	.42			.46
음주문제 전체			-.45***	.27	-.15*	.02	.19**	.03	.32
학업기능 손상			-.50***	.33	-.17*	.02			.35
행동상의 문제			-.27***	.11			.26***	.07	.18
대인관계 손상			-.42***	.21			.15*	.02	.23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남성 성 역할에 동일시하는 남자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남학생들에 비해 음주절제력도 떨어지고 술도 더 많이 마시며 또한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절제력 및 남성성 파임의 중다회귀분석

남성성 파임 척도와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남성성 파임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1 단계에서 음주절제력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2 단계에서 남성성 파임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2) 음주빈도에 대해서는 음주절제력 변인 중 음주거절능력이 2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주량에 있어서는 음주완급조절능력이 4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성 파임은 음주빈도나 평균주량의 변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유의한 설명량을 더해주지 못했다. 음주문제에 있어서는 음주절제력 변인 중 음주거절능력이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들 각각의 변산 중 약 11~33%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더불어 남성성 파임은 음주문제 전체의 변산 중 약 3%의 유의한 설명량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문제 영역 중 행동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7%의 유의한 설명량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남성성 파임이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남성성 파임은 주로 음주절제력 같은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음주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과장되고 극단적인 남성 성 역할에 동일시하는 특성인 남성성 파임(hypermasculinity)과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성성 파임의 정도가 심한 남자 대학생일수록 음주절제력이 떨어지고 과음을 하며 또한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적인 방식(masculine-typed manner)으로 행동하는 남성일수록 음주 정도가 심하다는 Chomak과 Collins (1987)의 결과 그리고 남성적인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의 수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Huselid와 Cooper (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남성성 파임을 보이는 남성들이 과도한 음주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남자다운 남자로서의 기존의 자기 이미지를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확증적 음주(confirmatory drinking)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Williams와 Ricciardelli (1999)는 확증적 음주와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남자다움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남성들도 자기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즉 자신이 남자답다라는 느낌을 높이기 위해 보상적 음주(compensatory drinking)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확증적 음주를 하는 남성들과 보상적 음주를 하는 남성들은 모두가 취약한 남성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주에 '남자다움'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남성성 파임의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남성성 파임과 평균주량간에 그리고 남성성 파임과 음주문제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절제력 변인의 설명량을 빼고 나면 남성성 파임의 음주 정도나 음주문제에 대한 예언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성 파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남성성 파임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음주절제력이 부족하고 결국 이 때문에 음주문제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하지만 남성성 과잉이 음주절제력을 매개하여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형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남성성 과잉은 음주절제력 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음주문제 영역 중 행동상의 문제 변산 중 약 7%의 고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성 과잉이 심한 남성들은 음주 후에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미 Mosher와 Sirkin (1984)도 남성성 과잉은 음주 후의 공격적 행동과 상당히 높은 상관($r = .65$)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남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음주절제력 변인 중 음주 거절능력은 음주빈도와 음주문제를 예언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음주완급조절능력은 평균주량의 변산을 42%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술을 거절하거나 짤끔거리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념이 만연해 있고 또 이와 같은 남성다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과음을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 역할 사회화가 음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의 초기부터 음주에 그릇된 남성다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음주문제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의 결과를 논리적인 선후관계에 따라 인과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 역할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 든 기성세대에서는 남

성성 과잉과 음주의 관계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또한 앞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Mosher와 Sirkin (1984)의 남성성 과잉 척도의 내용이 우리 문화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성 역할이란 문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남성성 과잉의 내용들이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성 과잉 척도에 대한 교차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임상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행우(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Berkowitz, A. D., & Perkins, H. W. (1987). Recent Research on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alcohol us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6, 123-129.
- Chomak, S., & Collins, R. L. (1987).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behaviors and alcohol consumption in undergraduate men and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194-201.
- Huselid, R. F., & Cooper, M. L. (1992). Gender roles as mediators of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alcohol use and ab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48-362.
- Lemle, R., & Mishkind, M. E. (1989). Alcohol and masculinit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 213-222.
- Lo, C. C.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alcohol use. *Journal of Drug Issues*, 25, 817-836.
- Mosher, D. L., & Sirkin, M. (1984). Measuring a macho personality constel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 Personality, 18, 150-163.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Tarter, R. E., Alterman, A. I., & Edwards, K. L. (1985). Vulnerability to alcoholism in men: A behavior-genetic perspectiv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6, 329-356.
-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1999). Gender congruence in confirmatory and compensatory drink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 323-331.

원고 접수일 : 2001. 1.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1. 3. 5.

제재 결정일 : 2001. 3. 15.

Relationship between hypermasculinity and alcohol use in undergraduate men

Haeng-Woo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masculinity, which reflects exaggerated or extreme male gender role identification, and drinking self-regulation and drinking problems in male college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masculinity and drinking self-regulatio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masculinity and frequency/quantity of alcohol use. A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masculinity and the degree of drinking problem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drinking self-regulation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lcohol use and problems, and that unique contribution of hypermasculinity was small.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ssibility that hypermasculinity influences upon drinking problems mediated by drinking self-regulation was discussed.

Keywords : hypermasculinity, drinking self-regulation, drinking problems